

자성력회복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부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 제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한 깊은 영성 체험

저자 : 데이빗목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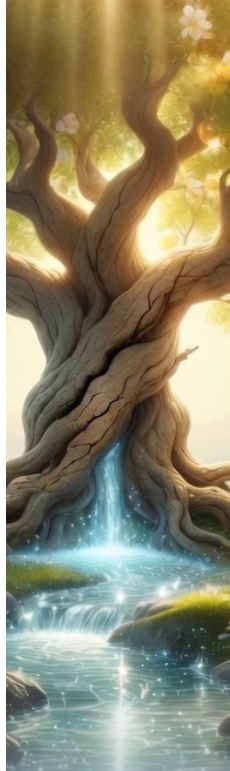
CONTENTS





서론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 영광의 자석력 _ 4
제 1 장	영적 자석의 원리 _ 9
제 2 장	자성의 공급 _ 17
제 3 장	성막기도와 영광체험 _ 26
제 4 장	거룩한 보호막 _ 35
제 5 장	역전의 기름부음 _ 43
제 6 장	신명나고 건강한 삶 _ 51





서론

/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 영광의 자석력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인력 속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영적 고갈과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하늘의 생명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메마른 종교적 의무감으로 사역의 현장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압도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역의 현장에서 악한 기류에 밀려 오히려 상처입고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 영혼의 '자성력(磁性力)'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강력한 자성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밀어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의 자성력이 마비되어 그분의 인력(引力)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인본주의적 열심은 우리 영혼을 '비자성체'로 코팅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절연체가 됩니다.

본 교재 <자성력회복반>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 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6주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 영혼에 낀 불순물을 보혈로 닦아내고, 성막 기도의 프로세스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 정점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석 곁에 오래 머문 철붙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듯(자화), 우리가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서는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자성이 회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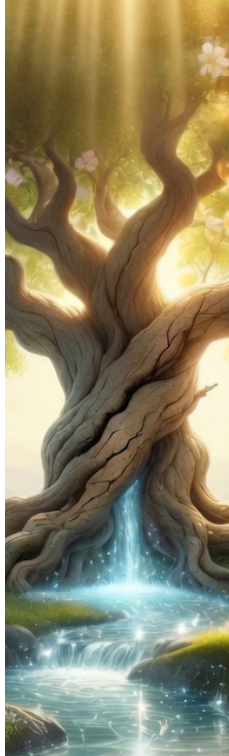
특히 치유와 안수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역자들에게 이 훈련은 생명 줄과 같습니다. 사역은 내 힘으로 자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는 '통로의 미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히 결합되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 앞에 소멸될 것입니다.

이 교재를 손에 든 목사님과 사역자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자석이 되려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거대한 자석이신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과 사역에는 끊이지 않는 기름부음과 신명 나는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이제 거대한 영광의 인력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자 David Lee





1 장

/

영적 자석의 원리

제 1 장 영적 자석의 원리

도입내용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대 자석이시며, 우리 영혼은 그 인력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비자성체'가 영혼에 끼어들면 하나님의 강력한 당기심 속에서도 결국 분리되고 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안의 자성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혈의 회개를 통해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내고, 내 힘이 아닌 창조주의 절대 인력에 나를 온전히 맡겨 거룩한 결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1. 잃어버린 인력(引力):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가. 변함없는 거대 자석이신 하나님

(1) 우리를 끊임없이 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성으로 우리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 주님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렘 31:3)라고 말씀 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인력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자성'입니다.

[렘 31:3]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2) 자성(磁性)을 잃어버린 영혼의 무기력

-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자성력이 마비되거나 약해지면, 하나님의 강력한 인력 안에서조차 결국 영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 자성을 잃은 철붙이는 자석 곁에 있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성력을 잃은 성도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걸돌게 됩니다.
- 성경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자성을 잃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 결합을 방해하는 비자성체(非磁性體): 죄

(1)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오염물질

- 죄는 영혼의 '비자성체'와 같아서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합니다.
- 철붙이에 두꺼운 오물이 묻거나 코팅이 되면 자석에 붙지 않듯, 우리 심령에 낀 탐욕, 교만, 시기심, 분노는 하나님의 인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절연체가 됩니다.
-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2).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2) 세상 기류에 오염된 가치관

- 세상의 기류(돈, 명예, 쾌락)는 우리 안에 세상의 자성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인력이 아닌 세상의 인력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영혼이 세상의 기류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성력은 급격히 감퇴하며, 영적 침체와 고갈의 기류가 온 삶을 휘감게 됩니다.

2. 자성력의 회복: 어떻게 다시 붙을 것인가?

가. 회개를 통한 불순물 제거

(1) 비자성체를 걷어내는 보혈의 능력

- 자성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영혼에 묻은 비자성체인 '죄'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 늘 회개를 통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우리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단단히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2) 마음의 민감함(성결)을 유지하는 법

- 자성력은 '성결'에 비례합니다. 심령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 사역자가 성결을 잃는 것은 자석에서 떨어져 나가

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곧 권세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나. 임재 안에 머무는 '절대 시간'

(1) 자석 곁에 머물 때 자화(磁化)되는 원리

- 평범한 철붙이도 강력한 자석 곁에 오래 머물면 자성을 얻어 자석처럼 변합니다. 이를 '자화'라고 합니다.
- 자성력의 회복은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 곁에 전심으로 머물 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성을 내 영혼에 전이(轉移)시키는 '자화의 시간'입니다.

(2) 결합이 가져다주는 생명력과 기름부음

- 자석에 단단히 결합된 철붙이는 자석의 힘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기름부음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요 15:5] 나는 포도나무
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
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실전 점검: 나의 자성력 체크리스트]

-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 (이끌림)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두꺼운 '비자성체(죄, 염려, 미움)'는 무엇입니까?
- 나는 오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자성을 공급받는 '절대 시간'을 가졌습니까?

[오늘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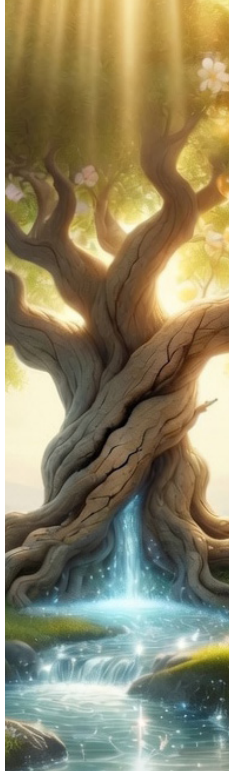
- "나는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신령한 자성체대!"
- "내 영혼의 자성력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코팅은 보혈로 씻겨질지어대!"

- "나는 오늘 하나님께 단단히 결합되어 세상이 감당 못 할 하늘의 인력으로 살아간다!"

[파수꾼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대한 자석이신 주님의 인력 앞에 내 영혼을 정렬합니다. 내 심령에 낀 세상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영광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주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결합된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장

/

자성(磁性)의 공급

제 2 장 자성(磁性)의 공급

도입내용

철붙이가 자석 곁에 오래 머물 때 비로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듯(자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절대 시간'을 통해서만 신령한 자성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내 영혼으로 전이되는 시간입니다. 분주함이라는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 공급의 근원인 말씀과 기도에 깊이 밀착하십시오. 그 밀착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 자성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1. 자화(磁化)의 법칙: 어떻게 신령한 자성을 얻는가?

가. 접촉과 머무는 원리

(1) 자석 곁의 철붙이가 자석이 되는 과정

-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철붙이라도 강력한 자석 곁에 오래 붙어 있으면, 자석의 성질을 이어받아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자화'라고 합니다.

- 영적 자성력 또한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전이(轉移)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히 위로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으로 '자화'되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입니다.

(2) 임재의 '절대 시간'이 필요한 이유

- 자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식의 경건 생활로는 영혼의 깊은 자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하나님 곁에 전심으로 머무는 '절대 시간'이 쌓일 때, 우리 영혼은 세상의 기류를 이기고 하늘의 능력을 방출하는 강력한 영적 자성체로 거듭납니다.
-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요 15: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
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
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라

나. 기름부음: 흐르는 자성력

(1) 공급의 근원에 주파수를 맞추라

- 기름부음의 고갈은 자석에서 떨어져 나갈 때 발생합니다. 자석에서 떨어진 철붙이는 즉시 그 힘을 잃고 평범한 고깃덩이로 전락합니다.
- 사역자의 권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기류'에 달려 있습니다.
- 기름부음의 고갈을 막으려면 사역의 현장보다 공급의 현장(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2) 내 힘을 빼는 결단

- 자성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 힘으로 자성을 만들려 애쓰는 것은 영적 인본주의입니다.
- 진정한 회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거대한 자석이신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겠다"라

고 결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기름부음은 우리를 관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2. 자성력을 약화시키는 영적 저항

가. 분주함과 소음의 기류

(1) 마르다의 함정: 일에 치여 근원을 놓침

-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머무는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 마음이 분요해지면 영적 주파수가 엉키고 자성력은 급격히 감퇴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눅 10:4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영적 불감증으로 가는 길

- 자성력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눅 10:41-42]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더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 이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자석에서 떨어져 세상의 비자성체들로 코팅되어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나. 자성력을 강화하는 파수꾼의 루틴

(1) 말씀의 자기장 안에 거하기

-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영혼의 자성 보존 법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1-2).

(2) 기도의 밀착력 높이기

-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영적 밀착 작업입니다.

[시 11-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백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완전한 결합'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전 점검: 나의 공급 상태 체크리스트]

- 나는 사역이나 일보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절대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물들고 있습니까?
- 기름부음이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는 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즉시 주님께 밀착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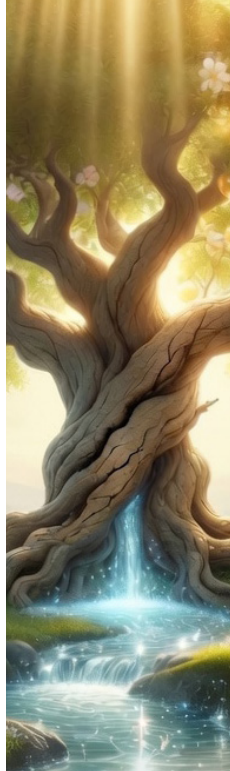
- "나는 오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님의 권능으로 자화된다!"
- "나를 분주하게 하여 임재를 도둑질하는 모든 어둠의 기류는 떠나갈지어다!"
- "나는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 끊이

지 않는 기름부음의 통로가 된다!”

[파수꾼의 기도]

존귀하신 주님, 철붙이가 자석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분주함의 함정에서 건져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라는 강력한 자기장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의 성품으로 자화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기름부음으로 사역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밀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장

/

성막기도와 영광체험

제 3 장 성막 기도와 영광 체험

도입내용

성막 기도는 영혼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보좌 정점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실제적 여정입니다. 번제단에서 자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세상 기류를 씻어낼 때, 비로소 자성을 가로막던 차단막이 걷힙니다. 지성소의 영광(Shekinah)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룰 때,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어둠의 기류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이 영광의 체험이야말로 사역자의 야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1. 성막 기도의 영적 메커니즘

가. 평화와 공급의 여정

(1) 자성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

- 성막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혼에 낀 비자성체(죄)를 닦아내고 하나님의 자성을 입는 체계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의 불순물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하나씩 처리할 때 비로소 '거룩한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2) 단계별 자성 강화

- 성막의 각 기구는 우리 영혼을 자화(磁化)시키는 영적 스테이션입니다.
-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인력은 강해지며, 우리 영혼의 자성 밀도는 높아집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성소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만들되" (출 25:8).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 뜰과 성소: 자성 회복의 준비

(1) 번제단과 물두멍 (비자성체 제거)

- 번제단: 내 자아와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두꺼운 불순물인 '죄'와 '교만'을 보혈로 씻어냅니다.
- 물두멍: 매일의 삶에서 묻은 세상의 기류와 부정함을 씻어내어 영혼의 민감함(성결)을 회복합니다.

(2) 등대와 떡상 (자성 공급)

- 등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 안의 어두운 진을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라는 자성을 공급받습니다.
- 떡상: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의 기본 자성을 견고히 다집니다.
- 분향단: 기도의 향을 올리며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결합의 직전 단계입니다.

2. 지성소의 영광: 완전한 결합과 어둠의 소멸

가. 셰키나(Shekinah) 영광의 임재

(1) 거대한 자석과의 단단한 결합

- 지성소는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순간도 분리 되지 않는 '완전한 결합'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 이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이나 감정을 넘어, 우리 영혼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자화시킵니다.

(2) 어둠의 기류를 태우는 거룩한 불

-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할 때, 우리를 억누르던 우울, 불안, 정죄라는 어둠의 기류는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 거대한 자석에 붙은 철붙이에게는 다른 오물이 달라붙을 틈이 없듯, 지성소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사단의 어떤 공격 기류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나. 기류의 반전: 영광에서 능력으로

(1) 소생하는 영적 감각

- 지성소 체험을 거친 사역자는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밀한 기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 막혔던 영적 보급로가 열리고, 하늘의 전략과 능력이 실시간으로 하달되는 '능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2) 세상으로 흐르는 자성력

- 지성소에서 얻은 영광의 자성은 사역자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 강력하게 자화된 사역자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인력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실전 점검: 나의 성막 기도 체크리스트]

- 나는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내 영혼의 비자성

체(죄)를 철저히 닦아냈습니까?

- 나는 성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버틸 충분한 자성을 공급받았습니까?
- 나는 오늘 지성소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감격을 맛보았습니까?

[오늘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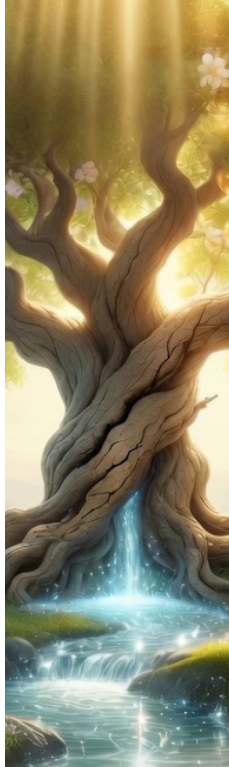
- "나는 성막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씻어내고 주님께 나아간다!"
- "지성소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할 때, 모든 어둠과 악한 기류는 한순간에 소멸된다!"
- "나는 오늘 하나님과 단단히 결합되어 세상이 감당 못 할 영광의 통로가 된다!"

[파수꾼의 기도]

거룩하신 주님, 성막 기도의 여정을 통해 내 영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자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세상의 때를 씻어내며 오직 주님께만 민감한 자성체

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주님의 인력 안에 완전히 함몰시켜 주시고,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기류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결합된 이 영광의 힘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평화와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장

/

거룩한 보호막

제 4 장 거룩한 보호막

도입내용

치유와 안수의 현장에서 악한 기류가 타고 들어오는 이유는 사역자의 자성력이 약해져 생긴 '영적 틈'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거대 자석이신 하나님께 더 강력히 밀착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주님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을 때, 사역자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때 악한 영은 사역자를 공격하기는커녕 접촉하는 즉시 영광의 불에 의해 튕겨 나가게 됩니다. 주님과 의 결합만이 완벽한 방어막입니다.

1. 영적 틈의 원인: 왜 악한 것이 타고 들어오는가?

가. 자성력 약화와 방어막의 붕괴

(1) 마귀에게 내어준 '틈'

- 치유 사역이나 안수 사역 중 악한 기류가 사역자에게 타고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역자의 자성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 자석에서 살짝 떨어져 틈이 생긴 철붙이 사이로는 온갖 오물(어둠의 기류)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 4:27)고 경고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지 못할 때 그 공백이 사단의 공격 통로가 됩니다.

[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 내 힘으로 하려는 인본주의적 사역

- 사역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사역을 주도하려 할 때 영적 방어막은 무너집니다.
- 자성력은 '공급'되는 것이지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자석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석이 되려 할 때, 사역자는 악한 기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나. 전신갑주: 자성력을 지키는 영적 피복

(1)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사역자는 사역 전후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1)는 명령을 실재화해야 합니다.

[엡 6:11]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이는 단순히 장비를 갖추는 것을 넘어,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밀착시켜 어떤 어둠도 침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2)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신

- 의의 호심경: 사단의 참소(비자성체)가 심장에 박히지 않도록,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 평안의 복음의 신: 사역 현장의 소란함과 위협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잃지 않도록 평안의 신을 단단히 매어야 합니다.

2. 불가침의 영역: 자석에 붙은 자의 권세

가. 거룩한 자성(磁性)의 반사 원리

(1) 접촉 즉시 튕겨 나가는 어둠

- 사역자가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 강력히 결합되어 있을 때, 사역자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불)으로 충만해집니다.

- 이때 악한 영은 사역자에게 접촉하는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에 의해 타격을 입고 오히려 튕겨 나갑니다.
- 이것이 바로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완벽한 방어이자 동시에 공격입니다.

(2) 영광의 보호막 (Shekinah Shield)

- 지성소의 영광을 통과한 사역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광의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 이 보호막은 악한 기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딛는 땅의 영적 기류 자체를 정화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나. 사역 현장에서의 실전 대처

(1) 즉각적인 영적 접지(Earthing)

- 안수 사역 중 마음이 무겁거나 불쾌한 기류가 느껴진다면 즉시 하나님께 더 깊이 밀착하십시오.
- "나는 이 사역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거대한 자석

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통로일 뿐이다!”라고 선포하며 영적 주파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2) 사역 후의 정화 루틴

- 사역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물두멍(성막 기도)의 과정으로 돌아가, 사역 중 묻었을지도 모를 세상의 기류와 부정함을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실전 점검: 사역자의 방어 태세 체크리스트]

- 나는 사역에 임하기 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는지 점검했습니까?
-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병을 고치려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성이 나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 사역 중 악한 기류가 느껴질 때, 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더 단단히 결합(밀착)합니까?

[오늘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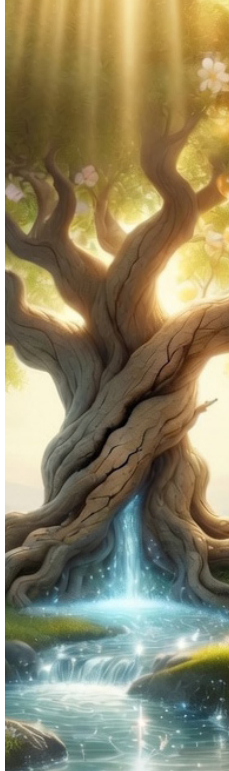
- “나는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결합되어 어떤 어둠도 틈탈 수 없다!”

- "나를 공격하려 타고 들어오는 모든 악한 기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 앞에 소멸될지어대!"
-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광의 보호막 안에서 담대히 사역한다!"

[파수꾼의 기도]

만군의 주 여호와여,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수 사역을 할 때 내 영혼이 주님께 더욱 강력하게 밀착되게 하시어 마귀에게 한 치의 틈도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타고 들어오려는 모든 어둠의 궤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오니,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불만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장

/

역전의 기름부음

도입내용

사역자는 단순히 어둠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늘 권세를 이 땅으로 강력하게 당겨오는 통로입니다.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방패 삼아 전진하십시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하나님께 결합된 사역자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현장으로 인출하는 영광의 인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합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과하여 어둠의 진을 파쇄하고 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1. 공격적 자성(磁性): 어둠을 파쇄하는 인력

가. 성령의 검과 레마의 반격

(1) 기록된 말씀에서 터져 나오는 검

- 사역자는 단순히 어둠을 막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7b]) 하신 말씀대로 대적의 심장을 찌르는 공격자입니다

다.

- 자석에 붙은 철불이가 자석의 성질을 띠듯, 하나님께 밀착된 사역자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레마(Rhema)'의 말씀은 어둠의 진을 단칼에 베어 버리는 예리한 검이 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 4:12) 모든 견고한 진을 파쇄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2)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는 불화살

- 악한 자가 쏘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 앞에 무력화됩니다.
-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엡 6:16).
-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패 삼아 전진할 때, 대적의 기류는 꺾이고 하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 영광의 압도(Overwhelming Glory)

(1) 자성이 강할수록 튕겨 나가는 어둠

- 자석의 인력이 강력할수록 비자성체나 반대되는 기류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튕겨 나갑니다.
- 사역자가 지성소의 영광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 몸에서 방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성은 악한 귀신들이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 이것이 바로 '역전의 기름부음'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하나님의 영광이 악한 영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2) 당겨오는 권세 (Pulling Authority)

- 자석이 철을 당기듯, 강력한 자성력을 회복한 사역자는 하늘의 보화와 권세를 이 땅으로 당겨오는 통로가 됩니다.
-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는 수준을 넘어, 하늘 지휘소의 능력을 사역 현장으로 강력하게 '인출'하는 영적 통신망입니다.

2. 실전 사역의 원리: 전이가 아닌 파쇄

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성으로 사역하라

(1) 치유의 통로가 되는 비결

- 내가 병을 고치려 애쓰는 순간 자성력은 약해집니다. 치유는 거대한 자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과'하여 환자에게 흐르는 현상입니다.
- 안수 사역은 나의 기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합된 하나님의 자성을 환자의 영혼 속에 전이시켜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2) 대적의 기류를 반전시키는 선포

- 현장의 분위기가 어둠의 기류에 눌러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자석이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를 대적한다!"라고 휘두를 때 상황의 기류는 즉시 반전됩니다.

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역자의 자세

(1) 이미 이긴 전쟁을 확증하라

- 사역자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하신 말씀을 근거로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실전 점검: 나의 공격 지수 체크리스트]

- 나는 오늘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레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 나는 사역 현장에서 어둠을 막아내는 데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을 압도합니까?
- 나는 오늘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당겨오는 '영광의 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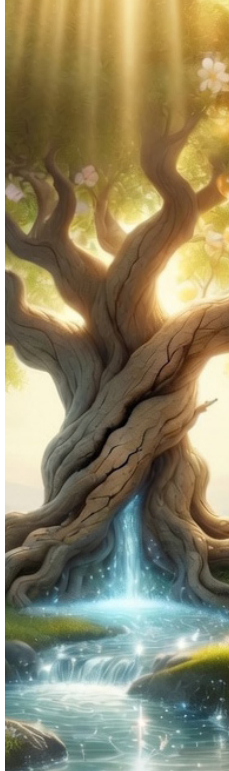
- "나는 성령의 검을 들어 나를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진을 파쇄한다!"

-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내 믿음의 방패 앞에서 소멸될지어다!"
- "나는 거대한 자석이신 주님의 권능을 이 땅으로 당겨오는 통로가 된다!"

[파수꾼의 기도]

승리의 주님, 나를 영적 군사로 세워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 떨지 않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담대히 뽑아 들게 하옵소서.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시고, 안수하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과 결합된 권세로 세상을 압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장

/

신명 나고 강건한 삶

제 6 장 신명 나고 강건한 삶

도입내용

영성 훈련의 완성은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자성을 보존하는 파수(把守)에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전신갑주의 끈을 조여야 합니다. 공급과 사역의 균형을 지키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사역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춤추는 신명 나는 잔치가 됩니다. 끝까지 자성을 지키며 완주하는 자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1. 자성력 보존의 법칙: 승리 이후의 파수

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영적 야성

(1) 승리 뒤에 찾아오는 방심의 기류

- 큰 은혜를 체험하거나 사역 현장에서 승리한 직후, 우리 마음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나태함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으며, 갑옷을 벗고 투구를 내려놓은 그 찰나의 순간이 대적에게는 가장 완벽한 공격 기회가 됩니다.
-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고전 10: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2) 다시 겸손의 자리로 (영광의 반사)

- 승리의 기억에 도취되는 것은 자석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님이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의 기류를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자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4:11).

[눅 14: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 신부의 영성과 군사의 기개

(1)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정결함

- 우리의 전신갑주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왕의 혼인 잔치에 입고 나갈 예복과 같습니다.
- 거룩함의 기류를 유지하며 매일 무장을 정비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의 마음이 집입니다.

(2) 타협하지 않는 영적 야성

- 세상 풍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야성을 간직하십시오.
- 끝까지 깨어 있는 파수꾼만이 새벽 별이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자석 인생의 실제: 신명 나는 사역의 삶

가. 공급과 사역의 황금비율

(1) 고갈을 막는 절대 시간의 사수

- 기름부음의 고갈을 막으려면 사역의 시간보다 공급(말씀과 기도)의 근원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

야 합니다.

- 자석 곁에 오래 머문 철불이가 자성을 얻듯,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 영혼에 신령한 자성을 공급합니다.

(2)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한 결단

-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쓰기보다, 거대한 자석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로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과 기름부음은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사역은 무거운 짐이 아닌 신명 나는 잔치가 됩니다.

나. 강건하고 활력 있는 파수꾼의 선포

(1) 환경의 기류를 압도하는 찬양

- 자성력이 충만한 사역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의 기류를 바꿉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외치며 지성을 가로막는 세상 이

론들을 파쇄하십시오.

(2) 공동체를 세우는 중보의 네트워킹

-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통신망을 통해 여러 성도와 연합할 때 어둠의 기류는 더 빨리 뚫립니다.
- 내가 지칠 때 지체의 기도가 나를 지탱하고, 나의 중보가 쓰러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합심 자성'을 경험하십시오.

[실전 점검: 나의 영적 긴장감 체크리스트]

- 나는 어제의 승리에 안주하여 오늘 마땅히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대충 입지는 않았습니까?
- 내 마음속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영적 자만심이나 나태함의 기류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 나는 오늘 하루를 마치며 내 무장을 점검하고, 내 일의 전투를 위해 성령 안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선포]

- "나는 어제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오늘 다시 새롭게 무장한다!"
- "내 안의 영적 야성은 식지 않을 것이며, 나는 끝까지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겠다!"
- "나의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이며, 나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며 정결함을 지키겠다!"

[파수꾼의 기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자성력회복반> 6단계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안일함과 방심의 기류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파수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성력회복반 교재

초판 발행 2026.5.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